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복지 확충이 노인빈곤 막는다

걸어지는 노년... '할증마' '할저씨' 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죄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죄 중에서 가장 독한 것이 빈곤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 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봐야 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8%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8%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봐야 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 없이 영감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픈 수밖에 없다.

풀이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인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사상과 경로사상을 '올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그런데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세계 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여망 19위, 후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로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만 무려 7만7천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의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社說

뒷좌석 안전벨트 필수다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시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이다.

특히 당장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좌석 승객에 비해 뒷좌석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머리 부분의 손상가능성은 성인 3배, 어린이(10세 전후)는 1.2배

높게 나왔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지난 20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두 대를 이용해 운전석과 뒷좌석에 인체모형을 두고 실시한 사고재현 실험 결과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IRTAD)에 따르면 지난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우리나라가 94%로 독일(98%), 스웨덴(98%), 영국(98%), 미국(9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뒷좌석 착용률은 30%에 불과, 독일(97%), 스웨덴(94%), 영국(91%), 미국(8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뒷좌석 안전띠는 자신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탄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既集墳典

既集墳典

이미 기
모음 집
무덤 분
법 전

▶ 뜻: 이미 분(墳)과 전(典)을 모았으니, 삼황(三皇)의 글은 삼문(三墳)이요, 오제(五帝)의 글은 오전(五典)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갈 곳 잃은 전동킵보드... 어디로 가야 하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족, 친구, 연인 등 공원과 거리에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동 킵보드 사고이다.

전동 킵보드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소 불문 활보하고 있고, 전동 킵보드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을 우리 과출소에 서도 많이 접하고 있다.

전동 킵보드에 대한 법규를 살

펴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킵보드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해당 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전동킵보드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 킵보드는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그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킵보드는 도로에서 주행해야만 하는데, 도로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

우가 많아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처리 절차나 법 규정에 취약점이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부담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자동차 운전자를 입장에서 자동차보다 현저히 느린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동 킵보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늘어나는 전동 킵보드에 대해서 이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환경이 미흡하고 이용자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채 사고가 나거나 단속이 되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의 사고 및 위반행위를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으로만 해결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규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이용자들이 현재 규정된 운행 준수사항을 철저히 익히고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도로에서 만나는 전동 킵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빈 / 나주 빛가람파출소 순경

문화융성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